

아메리카 20〔完〕

安箕泰 — 동회건축연구소

서울을 출발한지도 어느새 열흘이 되어 간다. 시카고의 旅程을 고비로 여행에 제법 익숙해 졌으며 긴장도 풀린 탓인지 어디를 가든 자신이 생긴다. 그러나 마음가짐이 자칫 해이해져 행동의 폭이 커짐으로써 무리한 일들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하는杞憂가 뒤따랐다. 다행스러운 것은 日益好調의 건강.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의 건강이 한결같이 최상이니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격이다. 어쩌면 의아심이 들 정도로. 일기마저 가는 곳마다 쾌청하고 온화하다. 수십년만의 폭설과 한파에 시달렸다는 시카고에 우리 일행이 도착한 날의 날씨는 근래에 보기드문 맑은 날씨라고 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위용에 도취되어 추위도 잊은채 이곳저곳 더 좋은 景觀을 보기 위해 우왕좌왕한다.

겨울철이라 폭포수의 落下된 부분에 부분적으로 얼음산이 형성되어 있어 그림에서 보던 맛은 나지 않는다.

버팔로우는 이리湖 동북쪽에 위치한 工業都市로서 호수의 물이 나이아가라江으로 흘러 폭포를 이루며 온테리오湖로 흘러 들어간다. 나이아가라江 건너편 沿岸은 캐나다의 온테리오州로서 폭포의 入口이며 관광의 명소이기도 하다.

버팔로우·당일 관광코스로 Peace Bridge · Niagara Falls · Robert Meses Niagara Power Plant · Fort Niagara 등을 돌아본 후 Johns Niagara Hotel에 투숙했다.

유서깊은 住宅街에 쾌적하게 자리 잡고 앉아 있는 집들과 1,800몇년이라는, 建立年代를 알리는 旂幟 標識

板이 눈길을 끈다. 100여년이 넘는 주택들이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어 여러채를 눈여겨 볼 수 있었으며 오래된 집들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이처럼 쾌적한 환경 속에서 居住하는 사람들은 不老長生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발전소를 방문했을 때는 合理性을 바탕으로 한 기능·능률·경제성을 또 한번 실감케 했다. 거대한 발전소의 施設規模나 發電量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것은 정해진 코스를 한바퀴 돌고 나면 발전소 내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견학 과정에 발전소측 직원의 자세한 안내가 따른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접수 안내석에 여직원이 한사람 있을뿐 전시 및 각종 機器器具를 설치·작동하여 시청각을 통해 방문객을 처리하고 있었다. 미국의 名所는 자연이든 인위적이든 모든 名所가 그러듯이 발전소도 방문객을 위한 施設만큼은 설계당초부터 충분히 고려된 것 같았다.

이제 버팔로우를 마지막으로 東部地域의 일정은 끝났다. 버팔로우에서 직접 西部行便이 없어 Cleveland空港에서 라스베가스로 향했다. 버팔로우에서도 그랬듯이 라스베가스日程도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없이 임했다. 어떤 목적을 전제로 한 여행이었던 都市도 있긴 했지만 이곳은 여행 중의 휴가를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라스베가스는 과연 듣던대로의 명성에 어긋남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다는 감도 없지 않으나 이

곳을 떠날 때는 일리있는 이해를 누구나 하게 된다.

공항에 첫발을 디디면 첫눈에 들어오는 것이 슬러트 머신이다. 오락기계라고 해야 할지 도박기계라고 해야 옳을지 모를 슬러트 머신을 대합실 한복판 가장 좋은 자리에서 즐비하게 설치해 놓고 있지 않은가. 라스베가스가 미국 내의 카지노의 본고장 이라고는 하지만 公共建物에까지 판(?)을 벌려 놓았으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던 터라 자신의 무식(?)과 상상의 미흡함에 머쓱해 진다.

네바다州 동부 사막 가운데에 위치한 이 도시는 카지노와 이혼소송으로 널리 알려진 不夜城의 환락도시이며, 이곳은 연중 강우량이 극히 적고 기후가 청명 건조하여 노년층의 신경통 환자들의 휴양지로서도 適地라고 한다.

市内로 향하는 차 속에서 사방을 두리번 거린다. 메마른 땅덩어리 위에 펼쳐진 市街地가 멀리 보이고 길가의 別판에는 호텔과 카지노의 도시임을 자랑이나 하듯 대형 광고판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다.

유난히 눈에 부딪치는 대형 광고판에는 언제 영국에서 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톰 존슨이 반갑다는 듯 활짝 웃는 얼굴로 내려다 보고 있다. 그가 부른 〈물레방아 人生〉이란 노래를 연상하니 못사람들의 도박에 의한 희비의 엇갈림이 떠오른다. 그리고 마치 잃은 자에게는 希望을, 얻은 자에게는 警覺心을 주는 것 같은 노래의 가사가 새삼 마음을 끈다.

여장을 풀자마자 Hover Dam으로 직행했다. 수시간만에 도착해 보니 계곡을 가로 지른 댐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세계 최대의 뱀은 그 당시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이며 1930년대에 이룩한 것이니까 본인과 비슷한 나이가 되는 셈이다.

規模를 살펴보면 높이 22.4m, 길이 379.2m, 上部두께 13.7m, 下部두께 201.2m, 發電量 1,344,800KW이다.

이 뱀은 캘리포니아 일대의 灌溉用水와 전력의 공급원이며 LA의 水源이기도 하다. 관광객을 위하여 일반인이 發電設備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발전소의 엘리베이터로 내부를 견학할 수 있다. 또한 전시실에는 각종 模型과 資料들이 공개되고 있다.

50여년 전에 건설된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뜻 이외에 또다른 관점은 코끼리같은 볼륨이나 피부(콘크리트)를 가진 형태로 비유한다면 그 내부의 마감재 및 시공의 정밀도, 건축분야의 설비 등이 어느 대도시의 초호화 고급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을 갖게 한다.

名所란 세계 최대·최장·최고 등의 (第一)만이 名所の 요건이 될 수가 없고 目的 이외의 名所로서의 觀客 수용 및 처리가 잘 계획되고 가꾸어진 곳이라야 명실상부한 명소일 것이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그것을 느껴온 바지만 또한번 명소의 眞面目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쿠로에 Old Vegas에 들러 잠시 동안의 휴식과 그곳 風物을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도착하자마자 슬러트

머신의 성능을 테스트해 본다. 기계가 다양하여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핸들을 당겨 본다. 본고장의 오리지널인 탱도 있겠지만 성능도 좋았고 확률 또한 높았다.

저녁식사 전 30분 동안 짝잘한 재미를 보아 식사 때 회원들에게 맥주 한 병씩을 호기있게 샀다. <공짜란 없는 법, 조심할 지어다> 혼자 마음 속으로 뇌까려 본다.

다음날은 名所 중의 名所인 그랜드 캐년 國立公園을 輕 비행기 편으로 향했다. 機上에서 내려다 보니 협곡들이 한없이 펼쳐져 있다. 하기가야 300여km에 걸쳐 대협곡을 이루고 있으니 어렵하기도 어렵다. 태고적 지구탄생의 한 面을 보는듯 했으며 인디언들의 말 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한 감회와 대자연 속의 자신의 존재를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좋을지 도무지 난감하기만 했다.

마지막 저녁은 어떻게 活用해야 할지 作心하기가 어렵다. Rido 쇼 관람은 공식회비를 냈기 때문에 행동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時間이 문제이다.

7시에 시작하는 공연장은 만원이었다. 쇼의 내용은 주로 노래·무용·마술 등 보편적인 것이며 무대장치와 화려한 의상, 특색있는 안무로 세련된 무용을 보여 주었다. 또한 무용수들의 의상은, 물론 무용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상의를 걸치지

않은 것이 일반 무대와 다른 것 같았다.

쇼가 파하고 관객들이 밀려 나오는 틈 속에서 겨안은 듯이 서로 영켜 다정하게 걸어가는 청춘남녀의 모습을 보며, 낮에 길모퉁이에서 보았던 결혼 전문(?) 교회가 떠오른다.

결혼은 교회에서 몇푼의 비용만 내면 이루어 지는가 하면 이혼소송으로도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결합과 이별이 용이하여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이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공연장 밖에서 우리 일행은 삼삼오오로 흩어져 소규모의 단체 행동이 되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 뒤덮인 밤거리는 구름끼 날씨의 대낮보다도 더 밝았다. 집집마다 도박장이어서 이집저집 기웃거리다 지쳐 숙소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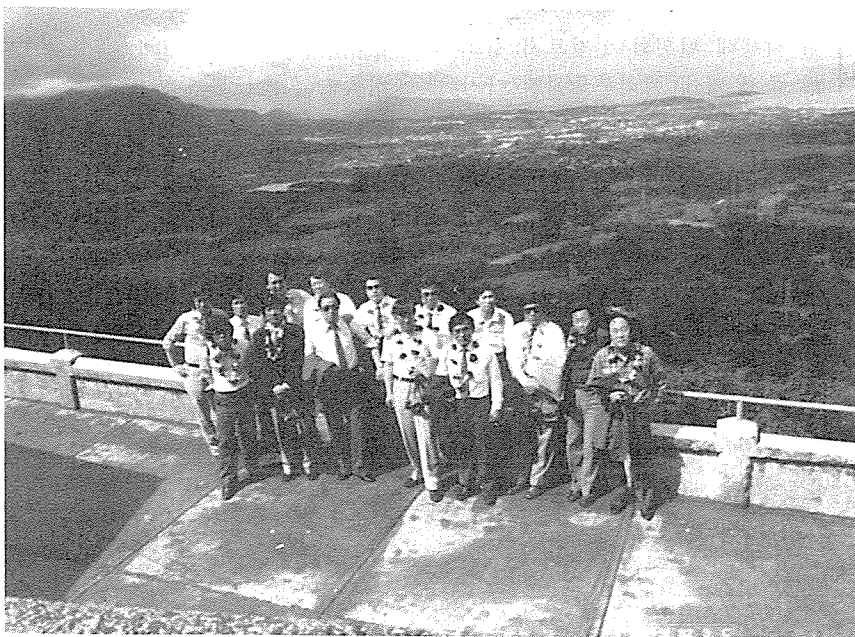
숙소라고 해야 또 도박장이다. 호텔의 1층 영업장은 200명 정도인데 출입문과 코너에 있는 스텐드 바와 안내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슬러트 머신으로 꽉 차있다.

선착한 일행들이 바에서 맥주로 피로를 풀며 제가끔 떠들어 댄다. 그 자리에 동석하여 한잔 기울이니 생각이 달라진다. 마음에 드는 기계를 골라 슬슬 핸들을 당긴다.

슬러트 머신에 대한 취미는 다른 게임보다 適性에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게임은 對人關係의 눈치·배짱 등의 심리전이기 때문에 피곤할 뿐만 아니라 익숙치 못한 습씨, 그리고 순수 여행자로서는 부담과 위험이 뒤따르는 까닭이다. 그러나 말없는 기계는 내 마음대로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심리적 부담이 없어 좋다.

슬슬 몇번만 하고 그만 두려 했던 것이 슬러트 머신의 매력(?)에 말려들어 한시간이 넘어도 끝이 안난다. 코인이 떨어질만 하면 쏟아져 나오게 계속되니 고장난 기계인지 마음씨 후한 기계인지, 하여간 서로가 임자를 잘 만난 것 같다.

장장 세시간을 하고나서야 수고해준 기계의 몸뚱이를 어루만져 주면서 자리를 떴다. 내 평생에 있어서 기록이 될만한 일이며 向後에도 後無할 것이다.



호놀룰루 山頂에서

결산을 해보니 착한 기계 덕분에 쌀 한가마 값은 생긴 셈이다. 通算 소액단위의 3개 맞추기는 수십번이고 최고격인 3~7자도 맞추어 보았으니 전적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샌 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녹음의 신선함이 우선 시원스러운 生動感을 준다. 東部 쪽의 회색빛 겨울만을 보아오다가 녹음을 대하니 別스런 세상같다.

三多의 고장은 우리나라의 제주도만은 아닌가 보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언덕·안개·바람, 이 세가지의삼다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이기도 하다.

이곳에서의 주요 순방지를 요약해 보면 金門公園 일대, 오클랜드만橋, U.C Berkely 大學, Treasure Island, Hyatt Regency, Golden Gate Bridge, Palace of Arts, Fish와 Man Shop 관광 등이었다. 그런데 특기할만한 것은 Hyatt 建物内部의 7, 8개층 높이의 오픈 스페이스는 색다른 건물이었으며 이렇듯 대담한 설계를 한 사람이나 이 案을 받아들인 建築主도 凡人은 아닌듯 싶다. 보통건물의 工事費에 비하면 과다한 지출이었겠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관광인파가 몰려들어 수익은 날로 더해 갈 것으로 보아진다.

후배 建築人 金聖鎭부부의 정성어린 환대에 대한 이야기와 생선시장의 낭만적인 情景등을 일일이 적고 싶다. 그러나 원고마감 시간에 쫓기어 생략하게 됨을 아쉽게 여기면서 다음 기착지인 LA의 일정을 간단하게 기록해 볼까 한다.

2월22일 LA에 도착하자마자 시내

를 두루 돌아본 후 Ambassador Hotel에 투숙하여 공식행사인 AIA 로스앤젤리스支部, CIRB 등의 會合에 대비,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23일 오전 10시, Pacific Design Center 건물 안에 있는 AIA LA 支部를 방문하여 목적했던 회합을 마치고 이어 CIRB측과도 예약된 韓食堂에서 만나 會同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在美韓人 건축인들이 다수 참석하여 성황리에 공식행사를 마쳤다. 우리의 공식행사 일정에는 Maxwell Starkman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김 수문씨가 시중 수고해 주었으며, 이번 기회에 AIA Architect 曠 정수씨의 친절에도 감사를 드린다.

LA 체류 중의 일정은 여러 친지의 상면의 기쁨으로 무척 분주했다. 특히 後學인 朴俊鎬씨의 물심양면의 도움은 너무 많은 빛을 진 것 같아 부담스러울 정도였으며 튼튼한 기반을 갖춘 事業體와 안락한 생활 속의 가족들을 대하니 흐뭇한 마음 그지없었다.

시저 펠리작의 Pacific Design Center에 대한 소감, Maxwell Starkman 설계사무실 방문시 김 수문씨의 안내로 미국인 부소장과 近作 계획도면을 펴놓고 의견을 교환하던 일, 그의 잡다한 기억들이 떠오르지만 이만 끝을 맺어야 하겠기에 거듭 아쉬움을 남긴 채 호놀루루·동경의 일정마저 생략하고 만다.

이 번 여행에 편의와 친절로서 협조해 주신 각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밝힌다.

뉴욕에서의 宋鍾國형, 元균과 崔敬花양, Eastern Tour Service의 Jean H. Kim, 보스톤의 朴 찬무教授, 와싱턴의 李元均·權璟模·洪榮基·徐廷和 諸兄, 시카고에서의 徐商雨교수와 金振煥·李鍾金 兩兄, 샌프란시스코의 金聖鎭씨 부부, 로스앤젤리스의 朴俊鎬씨 一家와 金昌熙형, 그리고 김희근씨·김수문·曠 정수兩兄, Mrs. Janice Axon, Mr. Ben Bartolotto, 하와이 호놀루루의 오준희씨, 동경에서의 李文輔교수·野崎康文·守茂春兩氏, 특히 고마운 것은 서울에서부터 호놀루루까지 全旅程을 성심껏 안내해준 허리우드觀光대표 尹여사와 朴양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밝히며 성업을 기원한다.

15명 전회원이 합심하여 뜻있는 旅程을 마치게 된 것을 다같이 다행으로 여기며, 여기에 그 명단을 적어 오랜 추억의 한 페이지로 장식해 두고 싶다.

姜聲益(강서건축연구소)
金相奎(서로건축사무소)
金然昌(동방합동건축설계사무소)
金長源(동우합동설계사무소)
金正原(건축사협회 서울지부사무국)
金正治(예전사 건축사무소)
閔庚辰(삼우종합설계연구소)
朴容漢(성아기술사)
梁在國(고려건축연구소)
尹元錫(미전합동건축연구소)
鄭采龍(서일종합건축)
趙炳熙(서로건축사무소)
崔相嫻(최상혁건축설계사무소)
崔善奎(은평합동건축연구소)
安箕泰(동화건축연구소)